

## 발칸 지역의 EU 가입 전망

### □ 불가리아·루마니아, 'big bang'에서 제외

- 2004년으로 예정된 EU의 1차 확대는 1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폭발적 확장'(big bang enlargement)이 될 것임.
- \* 가입 대상국: 지중해의 사이프러스, 말타를 비롯해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스토니아 등 동유럽 8개국임.
- 한편, 가입 대상국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1차 확대에서 제외될 것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임.
-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등 5개국은 1998년부터 EU 가입협상이 개시된 1차 협상 대상국이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스토니아 등과 함께 2차 협상 대상국에 포함되어 2000년부터 협상이 개시되었음. 그러나 지난 2000년 12월 니스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가입 신청국의 일괄 가입을 결정하는 한편, 가입충족도가 떨어지는 두 나라의 가입은 2004년 이후로 미루어졌음.

### □ 발칸국가들, EU와의 협력협정 추진

- EU와의 관계개선을 주요 대외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발칸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EU와의 협력협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s: SAA) 추진에 나섰다. 크로아티아와 마케도니아는 이미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유고연방(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분리될 예

정임),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iH) 등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임.

- EU는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포함한 동유럽의 EU 가입대상 10개국과도 지난 1990년대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정의 목적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EU의 경제·정치·사회적 규범을 따라 성공적으로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임. 특히, 이 협정은 일방적 무역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동유럽 국가들의 수출확대와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발칸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협정은 기존 EU 가입 대상국들의 협정과 모든 면에서 거의 동일함. 그러나 이전의 협정이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EU 회원국 자격 부여를 명시한 반면, 발칸 국가들과의 협정은 EU 회원국 자격 부여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음.

## □ 발칸국가들의 EU 가입 전망

- 협정 내용상, 불가리아·루마니아는 EU 가입과 관련하여 나머지 발칸 국가들과는 다른 지위에 있음. 즉, 1차 EU 확대에서 제외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니스협정에 따라 언젠가는 EU 회원권 확보가 보장되어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가리아·루마니아가 다른 발칸 국가들에 비해 EU 가입에 특별히 유리할 게 없다는 분석이 있음.
- 1차 확대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봉착한 EU는 향후 내부적으로 수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2차 확대는 상당 기간 지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특히,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올해 말 NATO에 가입할 경우, EU 집행부는 이를 위안으로 삼아 양국의 EU 가입을 상당 기간 늦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정부는 경제적으로 앞선 크로아티아가 향후 EU 가입에 있어 양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

\* 오는 11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NATO 19개국 정상회의도 '폭발적 확대' 문제를 다룰 예정임. 이 회의에서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발틱 3국 등 동구권 7개국의 신규가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미국은 노후화된 군전력, 빈약한 방위비 부담능력 등의 문제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NATO 가입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으나, 9·11 테러사태 이후 양국의 NATO 가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즉, 미국은 對테러 전쟁 수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였고, 양국은 군사기지 제공, 영공 통과 허용 등 아프간 공습 시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조하였음. 또한, 방위비 증액에도 양국 정부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NATO의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고 있음.

불가리아의 Simeon 총리는 야당(사회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가입을 추진중이며, 루마니아의 Nasetase 총리는 11월 정상회의에서 가입이 관철되지 못할 경우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란 배수진을 치고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음. 따라서 NATO 가입에 실패할 경우 비교적 양호한 국제사회의 평판을 가진 양국 총리는 커다란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EU는 궁극적으로 유럽을 하나로 통합하기를 바라는 한편, 자신들의 뒷마당이라 할 수 있는 발칸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협정 체결에 나서고 있음. 또한, 발칸 국가들도 EU 가입을 바라고 있어, 최종 가입은 아직은 요원한 일이나 발칸 국가들의 EU 가입 행보가 점차 구체화될 것임.

## □ EU 가입의 부정적 효과 우려

- EU 가입 대상국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EU 기준에 맞춰 구조조정과 제도개혁 등을 추진하는 것임. 가입의제가 되는 많은 분야가 대상국들이 서유럽 수준으로 선진화하는 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나, 일부 분야는 개별 국가에게는 적용하기 부적절하거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음.
- 특히,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이런 선진적 요건 적용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아직 낮은 경제수준에 머물고 있는 발칸 국가들에게 있어 EU 가입은 상당한 고통과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발칸 국가들이 많은 희생에 감수하면서 EU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